창사 61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TV
m.kjdaily.tv ▶m.kjdaily.com 광고문의 062)650-2070

제7573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음력 10월 19일)

광주시 숙원 '시내면세점' 유치 무산

희망 업체 없어 정부 요건 완화 예외조항 특허도 반납 처지

인프라 협소 외국인 관광객 저조 주원인…市 "내년 재추진"

광주시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시내면세점 유치가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예외 조항으로 특허를 내줬지만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14일 시에 따르면 관세청은 11-14일 서울·인천·광주 시내면세점 입점 신청을 받았지만 광주 지역신청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로부터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받은 뒤 유통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후 시는 롯데·신라·신세계 등 이른바 '빅3'는 물론 무안 공항 면세점 운영업체 등 중소기업에도 의사를 타진했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당초부터 광주의 경우 협소한 관광 인프라로 외국인 관광객이 없다보니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8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서 광주의 외래 관광객이 1.1%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중 1명만이 광주를 찾는 셈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수준은 세종시를 제외한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도 작용했다. 시내면세점은 한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유통업체간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중국 관광객 급감으로 적자가 쌓이면서 한화에 이어 두산그룹도 최근 사업권을 포기한 바 있다.

그동안 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왔고, 매출액, 외국인 관광객 등 요건과 무관하게 면세점이 없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면세점 유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외래 관광객 방문이 저조하다 보니 수익률 저조를 우려한 대기업을 비롯, 중소기업까지도 면세점 신청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내면세점을 유치하기 위해선 관광 인프라 재정비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홍일 시의원은 "지금까지의 백화점식 관광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관광객 유치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시내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외조항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어 재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내면세점 유치가 필요하지만 제반 여건이 좋지 않아 기업들이 기피하고 있다"며 "다시 시내면세점 유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관광 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들어 면세점 진입 장벽을 낮췄다. ▶2면에 계속

/김다이 기자

홀가분한 고3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오후 광주 남구 봉선동 동아여고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김애리 기자

수능 작년보다 쉬워…영역별 변별력은 확보

국어 독서파트 경제지문 '최고난도'…영어, 평이하게 출제

14일 시행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은 '불수능'이라 불리며 매우 어려웠던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쉬웠던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독서파트의 경제 지문이 까다로워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는 다소 높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수학 영역은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영어는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됐다. ▶관련기사 7면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어영역은 전년도에 비해 쉽게 출제됐으나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체감 난이도는 다소 높아 변별력을 갖췄다. 고난도 문제로는 홀수형 기준 베이즈주의 인식론을 주제로 한 인문학지문에 딸린 19번과 고전가사 '월선헌십육경가'를 지문으로 한 22번,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다룬 경제지문을 읽고 푸는 37-42번이 꼽혔다. 이 중 보기에 제시된 예시를 보고 BIS 비율을 직접 계산해야 풀 수 있는 40번이 특히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됐다.

수학 가형은 작년과 비슷했다. 고난도 문항인 21번, 29번, 30번이 여전히 어렵게 출제됐으며, 고난도 문항을 제외하고도 1-2문항 정도가 까다로워 수험생들이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다. 수학 나형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고난도 문항은 작년부터 지나치게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고난도 문항을 제외한 문항 중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해결이 되는 등 다소 생소한 내용이 출제돼 수험생들이 느끼기에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됐다.

영어는 매우 어려웠던 작년에 비해 비교적 평이한 수준이었다. 특히 최고난도 문항인 빈칸 추론 유형이 평이하게 출제됐으며, 전반적으로 1-2문제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 작년 1등급 비율 5.3%보다 올해에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역은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됐지만, 역사적 사실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다수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웠던 작년 수능에 비해 쉽게 출제됐지만, 영역별로 변별력을 갖춘 시험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영어가 평이하게 출제됨에 따라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통과 비율이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정시 이월 비율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패스트트랙 '공선법' 통과시 광주·전남 지역구 4곳 줄 듯

수도권 10, 영남 8, 호남 7, 강원 1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되는 광주·전남 지역구는 4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31일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6천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광주·전남 4곳을 포함 모두 26곳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광주의 경우 동구·남구을(14만4천988명,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서구을(14만9천493명,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등 2곳, 전남은 여수시갑(13만5천150명, 대안신당 이용주 의원), 여수시을(14만7천964명,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등 2곳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은 전북 3곳을 포함해 7곳에 달하고, 수도권은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이다.

충청권은 대전·충북·충남 모두 인구상·하한선 범위 내에 들어오며, 세종시(31만6천814명, 민주당 이해찬 의원)는 상한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제주도 또한 모두 인구 상·하한선 안에 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

다만 이들 26곳뿐만 아니라 이들의 통폐합을 위해 확정 대상으로 들어오는 지역구까지 고려하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는 60곳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천560-30만7천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선거구 인구수가 이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이 된다.

/김진수 기자

호남 최초 스마트폰 방송국 광주매일TV
제6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17강 - 최인태 동양철학가
제6회 빛고을 건강 게이트볼 대회
2019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개막
m.kjdaily.tv ▶m.kjdaily.com PC·스마트폰·유튜브·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고·시청문의 062)650-2024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

태양광 & 풍력발전 바로알기

태양광·풍력 발전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태양광 바로알기

Q1 태양광 발전소가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나요?
태양광 발전소 주변 실증조사 결과, 일반지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조량·자외선 차이 없음
대기 온·습도 차이 없음
가축 체중 변화·스트레스 호르몬 차이 없음

Q2 태양광 발전소의 전자파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나요?
태양광 발전소 전자파는 생활가전의 전자파 보다 약합니다.
태양광 인버터 전자파 발생량 3kW : 7.6mG
전기오븐 56.41mG
전자레인지 29.21mG
휴대용안마기 110.75mG

Q3 태양광 발전소의 빛 반사가 눈부심을 유발하지는 않나요?
태양광 발전소 빛 반사율은 5~6%로 유리의 반사율보다 낮습니다.
빛 반사율 5~6%
태양광 vs 유리·비닐하우스·수면
빛 반사율 7.48%

풍력 바로알기

Q4 풍력 발전소 소음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나요?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며 발전기 일반소음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합니다.
풍력 발전기의 일반소음 40dB
400m
생활소음 규제기준 낮 : 55dB 밤 : 45dB

Q5 해상에 설치하면 해상 생태계에 문제가 없나요?
생태계 피해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어족자원이 늘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관광단지로 조성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인공어초 역할을 해 오히려 어족자원이 늘어남

Q6 풍력 발전기가 주변 산림을 훼손시키지 않나요?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운영 종료 후 회복됩니다.
복구설계서 의무적으로 제출
운영 종료 시 자연환경을 원래대로 복구